

제목 : 짜짜 짜린고비 (부제-자린고비)

-등장인물-

조대감(남)

조대감처(여)

조석(아들/남)

조영(딸/여)

끝순이(여)

돌쇠,최대감(남)

생선장수,말년이(여)

무대 밝아지면, 조대감을 중심으로 가족들과 마을사람들 모여 함께 군무.

자린고비 (합창)

짜짜짜짜 짜린고비, 짜짜짜짜 짜린고비

충주에 갑부 자린고비 조대감
얼마나 짠지, 얼마나 지독한지

밥반찬은 간장 하나

굴비는 그림의 떡

한 번 보고 밥 한 술

두 번 보면 “뻑! 굴비 닳는다, 그만 봐라”

세 번 보면 동네잔치!

짜짜짜짜 짜린고비, 짜짜짜짜 짜린고비

충주에 갑부 자린고비 조대감
얼마나 짠지, 얼마나 지독한지

부채질은 도리 도리

고깃국 조물조물

한 번 끓여 밥 한사발

두 번 끓여 “에잇! 우물에 손을 씻었으면 평생 우려낼것을!”

세 번 끓여 동네잔치!

짜짜짜짜 짜린고비, 짜짜짜짜 짜린고비!!

- 1막 -

(1장)

아침을 알리는 새소리에 무대 밝아지면 조대감이 두리번거리며 무언가 찾는 모습. 그 모습에 아내가 다가온다.

조대감 (고개를 가웃거리며) 이상하단 말이야..
아내 아니, 어제부터 뭐가 그리 이상하단 말이에요?
조대감 이번에도 없어졌단 말이야. 그것도 아주 조금.
아내 당신이 착각한 거겠죠. 내 보기엔 같아 보이는걸요?
조대감 어허! 이 사람이 살림을 대체 어떻게 하는 게야? 그렇게 매일같이 보는데도 모른단 말이야?
아내 (포기한 듯) 에휴,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그럼 오늘은 그 범인을 꼭 찾아내 보세요. 오늘이 장날이라니 저는 잠시 다녀와야겠어요.

아내 퇴장하면, 조대감 고개를 요리조리 살펴보고 있다. 잠시 후, 어디선가 들리는 “엥엥”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다가 이내 가까이 들리기 시작한다.

조대감 오호라! 이놈에 파리 녀석이! (계속 고개를 돌리며) 네놈이 감히 내 독대에 된장을 훔쳐 먹었다 이거지? 네, 이놈! 게 셋거라!

우스꽝스러운 음악과 함께 조대감 여기저기 파리를 쫓는 모습.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조대감 헉헉거리며 멈추고 서 있다.

조대감 (살금살금) 잡았다!

조대감 파리를 잡은 듯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조대감 다리에 이렇게 된장을 묻혀 내뺏다니... 아니, 지금껏 얼마나 갖고 간 게야? 아이고, 아까워라. 쪽쪽 쪼오옥!

파리의 다리를 다 빨아놓고 나서야 흡족해하더니 이제야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조대감 에엥? 내가 대체 어디까지 온게야? 에휴, 신이라도 신고 왔으면 아주 큰일이었겠군. 신발이 엄청 닳았을 거 아냐?

그때, 뛰어오는 딸 영.

영 아버지, 아버지! 헉헉... 때가 되었는데도 어찌 안 들어오시고.. 한참을 찾아 다녔어요. 저녁상 차린지가 한참이에요.

조대감 뭐야? 아침 먹은지가 언젠데 벌써 저녁이나?

영 아버지 안 오셔서 식구들 모두 점심을 굶었지 뭐예요. 어머니께서 아주 맛난 국을 준비했으니까 얼른 저녁 자시러 가세요.

조대감 니 어미가 뭘 준비했기에 이리 호들갑이나?

영 오라비랑 저랑 얼마나 고깃국을 먹고 싶어 했는지 아시죠?

조대감 얼토당토않은 고깃국 타령은 아직도 안 끝난 거냐?

영 (뿌듯해하며) 그럼요! 자자, 어여 가요. 오늘 저녁은 아주 거하니까.

조대감 이이... 설마, 니 어미가, 나 몰래 고기라도 사 온 거냐?

영 고기는 고기죠. 고깃국이나니까?

조대감 (화를 내며)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가자, 어여 가!

딸 영과 조대감 사라지는 사이 영이 친구들 등장.

말년이 대단해!
 끝순이 대단해!

- 대단해! (노래) -

고깃국을 먹는다니 대단해!
 조대감댁 난리났네 고깃국
 짬돌이댁에 고깃국이라니!
 부잣집 조대감댁 고깃국엔 고기가 얼마나 많을까?
 사이좋게 나눠먹음 얼마나 좋을까?
 베품이 무엇인지 모르는 짬돌이네 가족
 부자면 뭐하나? 곁에 우리 같은 친구조차 없는걸
 부자 아녀도 이렇게 함께 나눠먹는게 더 좋은걸
 부자 되는것보다 더 소중한건 함께 하는 것인걸

짬돌이네 외로움도 대단해!
 조대감댁 난리났네 외로움
 부자되려면 외로움뿐이라니!
 부잣집 조대감댁 식구들은 친구가 얼마나 없을까?
 사이좋게 나눈사이 얼마나 좋은데?
 베품이 무엇인지 모르는 짬돌이네 가족
 부자면 뭐하나? 곁에 우리 같은 친구조차 없는걸
 부자 아녀도 이렇게 함께 나눠먹는게 더 좋은걸
 부자 되는것보다 더 소중한건 함께 하는 것인걸

끝순이 짹... 영이도 참 딱하.
 말년이 맞아. 울엄니가 낭중에 저런 집에는 절대로 시집가면 안된다했어.
 끝순이 울아버지도 저렇게 살거면 기냥 산 속 깊은 곳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고 하시긴 하더라. 다행히 영이 오라비는 저 정도는 아닌거 같던디.
 말년이 (손사레치며) 뭘 소리여?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했어. 배운게 어디 가졌어?
 끝순이 (변명해주듯) 뭐.. 막 쓰는 것보단 아끼는게 좋긴 혀.
 말년이 아끼는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영이를 좀 봐봐. 을매나 지독혀. 밖에서 놀고 싶을텐디도 안나오잖여.
 끝순이 (의아한 듯) 응? 영이는 조대감께서 못나가게 하는거 아녀?
 말년이 아녀. 저것도 을매나 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집에서 나가면 신발이며 옷이 헤진다며 그거 아까워 못 노는거여.
 끝순이 뭐어? 아니, 우리가 놀아봤자 뽀뽀기밖에 더하냐? 그리고, 헤져봤자 뭐가 헤진다는거여?
 말년이 바람에 날리는 것이 몇 번 되고, 훅놀이라도 할라믄 옷 베리고, 옷 베리면 빨래 빨아야 허니께...
 끝순이 (웃으며) 아니, 빨래야 냇가가서 빨면 되는거지... 아! 자주 빨면 헤지긴 헤지겄구나. (감탄하며) 우와! 그렇게도 절약하는 방법이 있구나...!
 말년이 그 아버지에 그 딸이지! 아, 그러니까 그 오라비는 얼마나 대단하겄어?
 끝순이 그런가...?
 말년이 자, 우리도 때 됐으니께 어여 밥 먹으러 가자. 엄니가 끝순이 너도 델고 오랬어.
 끝순이 그러? 말년엄니가 최고라니까? 너네 엄니 나물반찬이 을매나 맛나는디! 호호호...

둘 사라지면서 상 차려져있는 조대감댁으로 교차된다.

조대감 음... 자, 먹자.
 아내 (기대에 차서) 어때요?
 조대감 국물이 아주 진하군.
 석 (눈치보며 슬쩍) 이거... 맹물... 끓인거 아니지요?
 영 오라버니, 고기 건더기는 없지만 이건 분명 고깃국이야.
 석 (그릇을 휘휘 젓더니) 하하.. 그래. 고기 한 점 없는 고깃국이구나.
 조대감 어허! 어디 밥상머리에서 떠들며 밥을 먹는게냐?
 영,석 죄송합니다.
 아내 (자랑스레) 그래도 오늘 장 날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고기를 마음껏 주물럭거릴 수 있었지 뭐예요? 잔뜩 주무른 손을 깨끗이 솔 안에 행

컸으니 며칠은 고깃국을 먹겠지요?
 조대감 (수저를 탁 내려놓는다)
 아내 아니..왜...?
 조대감 당신은 한참 멀었군.
 아내 네?
 조대감 내 뭐라던가? 뭘 하기 전엔 생각에 생각을 해보라고 했잖소? 그렇게
 나 많은 고기를 맘껏 주물럭거렸다면 그 손을 우물에 푹 담가 닦아
 냐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다 같이 나눠 먹었
 을거 아니요?
 아내 어머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해요.
 영 아... 저라도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고기 냄새에 저도 모르게 집에서
 제일 큰 솥에 물을 붓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석의 상상-

석 (화가 난 듯 일어서며) 아니,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
 린 언제쯤이면 사람답게 산답니까? 이만한 집에 이만큼 고생해서 모은
 재산 이제 좀 맛난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사 입고 그럼시다. 좀!

석이의 상상이 끝나자 식구들 석을 바라본다.

조대감 그래, 우리 집 장손인 석이는 어찌 생각하느냐?
 석 (깁듯이) 네, 아버님. 이번 일은 모두 생각이 짧았던 듯합니다. 제가
 남자만 아니었으면 잘못된 살림을 보았을 것인데.. 장손으로서 할 말
 이 없습니다.
 조대감 그래. 다들 깨달음을 얻었으니, 되었다. 다음에 이런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게야. 자, 먹자.
 일동 네.

식구들 밥을 맛있게도 먹는다. 집 밖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린다.

석 (배를 만지작거리며) 아이고, 배야... 간만에 고깃국을 먹어 그런가,
 저는 그만 먹고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조대감 그래. 속에서 받지 않는데 억지로 먹어 배출하는 것도 낭비지.

석 조용히 나가면 밖으로 교차.

석 (부엉부엉 소리 내며 누군가를 찾는 모습)
 끝순 아버지가 뭐라 안 하셔유?

석 응. 배 아프다고 나왔으니까 안 찾으실 거야. 걱정 마.
 끝순 (부끄러운 듯) 저기, 영이도 내가 온 거 모르지요?
 석 당연하지! ... (할 말이 없는지) 밥은 먹었어?
 끝순 응. 오라버니는 고깃국 잘 먹었어유?
 석 (놀라며) 어떻게 알았어?
 끝순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어유. 맛있었겠다. 우리 매일같이 나물반찬..
 석 아니, 아니야. 끝순이 너도 알다시피 우리집 알잖아? 그냥.. 뭐..
 모양만 고깃국인.. 암튼 그런 게 있다. 하하...
 끝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우와! 곧 보름이라더니 달이 흰하네유?
 석 그러게. 끝순이 니 얼굴처럼 참 흰하다.
 끝순 뭐예유? 호호...

- 자린고비 사랑(듀엣) -

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 널 사랑해도 되는걸까
 끝순 나또한 가진 것 없는 걸. 그 사랑 받고 싶어
 석 아끼고 아끼는 걸 배워온 나의 삶
 끝순 사랑은 아끼는 게 아니래
 함께 너와 나의 맘 한 마음 한 뜻 사랑할 수 있을까
 아끼고 아끼는 내 사랑 이제 숨길 수 없어
 사랑이란 서로를 이해하는 것
 사랑이란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
 그 어떤 일이 있다해도 그 어떤 일이 있다해도
 우리의 사랑만큼은 잊지마요.
 석(대사) 하지만, 아버지가 아시면 사랑도 사치하고 할거야.
 끝순 아랑은 아끼는 게 아니래
 함께 너와 나의 맘 한 마음 한 뜻 사랑할 수 있을까
 아끼고 아끼는 내 사랑 이제 숨길 수 없어
 사랑이란 서로를 이해하는 것
 사랑이란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
 그 어떤 일이 있다해도 그 어떤 일이 있다해도
 우리의 사랑만큼은 잊지마요.
 함께 너와 나의 맘 한 마음 한 뜻 사랑할 수 있을까
 아끼고 아끼는 내 사랑 이제 숨길 수 없어
 사랑이란 서로를 이해하는 것
 사랑이란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
 그 어떤 일이 있다해도 그 어떤 일이 있다해도
 우리의 사랑만큼은 잊지마요.

석 잊지...않을 수 있지?
 끝순 응.
 석 나, 이 집을 벗어나고 싶어. 아끼다 못해 인색하기로 소문난 우리
 집이 창피하기만 해.
 끝순 (석의 손을 잡아주며) 아니예요. 아버지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런걸
 거여. 사실 과하다 생각이 들긴허지만, 그라도 오라버니 아버지잖여.
 뭐... 과하게 쓰는것보담 애끼는게 더 좋은 거지 뭐.
 석 아이참, 이러니 내가 끝순이 널 안 좋아할 수 있겠냐? 넌 어쩜 그리
 마음이 넓으냐?
 끝순 아이, 몰러.

그때, 영이 다가온다.

영 내, 이럴 줄 알았어.
 일동 영아!
 영 오라버니, 끝순이 좋아해요?
 석 (결심한 듯) 그...그래!
 영 (웃으며) 호호... 끝순이 너도 우리 오라버니가 좋냐?
 끝순 모...몰러!

끝순이 창피한 듯 도망간다.

영 오라버니, 내 친구 끝순이는 엄청 착해. 알지?
 석 아니까 이 오라버니가 좋아하는 거지.
 영 아버지께 뭐라하려구?
 석 뭐... 언젠가 말 해야지.
 영 빨리 말하는 게 좋을거야. 얼마전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 말씀하는거
 들었는데, 오라버니 장가 보낼 생각 하던데?
 석 뭐?
 영 우리집 버금가게 아낀다 하는 집안 물색한다고. 그런 집에서 자란 처
 자야말로 아끼는 걸 굳이 가르치지 않고도 살림을 아낄 줄 알거라고..
 사돈 맺을 곳 좀 알아보라 하더라구.
 석 (머리를 긁적이며) 아버지도 참...아.. 어쩐다...
 영 그래서, 내가 생각해 둔 것이 있어.
 석 뭔데?
 영 그러니까...

영이 석의 귀에 속닥거리면 석이 안된다는 듯 손사레치고, 이에 영이 계속 설득하는

모습에 암전.

(2장)

“계십니까? 계십니까?” 소리에 무대 밝아지면, 최대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조대감과 식구들이 나오며 누군지 모르지만 인사한다.

최대감 (인사하며) 안녕하지라잉? 지는 시방 저쪽 전라도에서 온 최대감이요.
조대감 먼 지방에서 이 시각에 어인일이시오?

누가누가 더 짠가? (최대감노래)

나는 나는 전라도 땅에서 온 최대감
소문 듣고 허벌나게 걸어 왔지라.
조대감(대사) 무슨 소문 말이오?
시방,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에서 가장 짜기로 소문난 고집쟁이 최대감이지라.
“그란디, 누가 그랍디다?”
나보다 더 짠 사람 충청도 충주에 떡 허니 있다!
우헤헤헤 말도 안돼. 우헤헤헤 말도 안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짠 사람이 있다니?

나는 나는 전라도 땅에서 온 최대감
나와 당신 중 누가누가 더 짠가?
온 세상에 알리겠네. 내가 최고라고.
누가누가 더 짠가?
소금보다 더 짠 나아말로 진정한 구두쇠!
나는 나는 전라도 땅에서 온 최대감
나와 당신 중 누가누가 더 짠가?
온 세상에 알리겠네. 내가 최고라고.
누가누가 더 짠가?
소금보다 더 짠 나아말로 진정한 구두쇠! 우헤헤헤!

최대감 늦은 시각에 실례를 무릎쓰고 하룻밤 신세를 좀 질까 합니다요잉
조대감 하.. 것참... (가족들에게) 당신은 오늘 영이와 함께 자는게 좋겠소
아내 네. 자, 애들아 들어가자. 그럼...

아내 아이들과 함께 최대감에게 인사하고는 들어간다.

최대감 하여, 나가 시방 조대감과 내기를 해볼까해서 왔지라. 워떻게.. 한번 해볼 으향이 있으시지라잉?

조대감 하하.. 그렇소? 허면.. 내기는 무엇을 할 생각이요?

최대감 (굴비를 내밀며) 나가 지면 이 귀한 굴비를 내어줄 것이고, 조대감께서 지면 이 굴비는 내가 갖고 가지라. 거, 밀쳐야 본전인게 할 만한 내기지라잉?

조대감 좋소.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소?

최대감 뭘 어찌 할 것은 없지라. (갑자기 발을 보라는 듯 신발 한짝을 꺼내보이며) 먼 길 오느라 신이 닳을까봐 한짝씩 번갈아 신고 왔더니 발이 좀 아프고마잉.

조대감 그렇겠소. 난, 이미 두 짝을 다 손에 들고 다니는 버릇을 들였더니 피곤이 뭇지 모르지요.

최대감 (그제서야 조대감의 맨발을 보고는) 오호, 대단하시구료. 예잉, 질 수 없지! (헛기침) 음!아따, 그나저나 여름은 여름이지라. 꽤나 덥소잉?

최대감 조용히 부채를 꺼내 들고는 살살 부채질을 하며

최대감 념들은 죄다 부채 하나 사문 여름 한 철 나고 다 망가진다는디, 시방 난 이 부채를 한 번에 한 살만 펼쳐 부치는 덕에 부채의 살이 다 떨어지려면 10년은 되어 하지라.

이 말에 조대감 부채를 들더니 얼굴을 흔들어댄다.

조대감 그런 사치를 해서 언제 재산을 모은단 말이오. 쫓쫓...

최대감 오호! 저런 방법이! (헛기침) 음! 다음엔 기필코 이겨볼것소잉.

조대감 자, 이려고 있을것이 아니라 먼 길 오셨는데, 잠을 청하시지요.

최대감 (방으로 들어와서는) 암만 여름이라도 밤엔 썰렁하지라. 요기 요 구멍 뚫린 것은 막고 잠을 청해야지라?

조대감 어허, 안타깝게도 우리집엔 이 구멍을 막을 종이가 없대오.

최대감 (가슴팍에서 작은 종이조각을 꺼내더니) 음... 이것이면 되겠지라. 이 종이가 워찌 있는냐? 얼마 전 최참봉이 보낸 전갈을 요리코롬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짝끔씩 쪼개 다니지라잉.(두리번 거리며) 저녁 먹고 남은 밥풀 두 어깨만 좀 내주쇼잉

조대감 (밥풀을 건넨다) 여깁소.

최대감 문풍지 붙일 종이 조각 하나 갖추고 있지 않다니... 역시, 아깁 줄 아시는고마잉. 뭇든 있으면 쓰지라. 뭇든... 아함!

문풍지를 붙이고는 어느새 최대감 잠이든다. 조대감 한참을 쳐다보더니 밖으로 나온다. 다가오는 아내.

아내 아직 밤바람은 찬데 고뿔이라도 걸리면 어찌시려구 나왔어요?
조대감 애들하고 자는데 불편해 나왔소?
아내 아니예요. 남을 위해 내어주는 게 어찌 불편하다 합니까?
조대감 아끼고 아끼는 것에 내기를 하자니.. 하하...
아내 아끼는 것이야 당연한 것을... 하긴.. 저도 당신을 만나기 전엔 많이 부족했지요. 그래도 하루,하루 아끼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간답니다.
조대감 다른 아녀자들처럼 마음껏 멋도 부리고, 이것저것 쓰고 싶은게 많을 거라 생각하오.
아내 아니예요. 마음껏 쓰는 것 보다 아끼고, 아끼어 더 큰 일에 쓸 날을 손꼽는걸요. 당신의 포부. 난 아직도 기억한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내와 조대감 노래)

아내 스산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당신은 내게 다가왔죠
 당신은 말했죠.
조대감 아끼고 아끼어 나같이 힘든 사람에게 도움 주는 그날을 기다려
아내 남들은 몰라. 당신이 왜 그리 아끼고 또 아끼는지
조대감 남들은 몰라도 돼. 언젠가 내 큰 뜻의 그 날이 오겠지
아내 또렷히 난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간 걸
 아무것도 없던 당신에겐 오로지 아끼는 것이 답이었던 걸
조대감 이런 내 맘 알아주는 당신에게 고맙고 고마워.
 하지만, 아직 멀었어.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만 해.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만이 모두를 위한 일
아내 언젠가 알거야. 누구나 알거야. 당신의 깊은 뜻
 내가, 당신이 기억하고 있어요.
함께 언젠가 알거야. 누구나 알거야. 우리의 깊은 뜻
 내가, 당신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끼고 아끼어 나같이 힘든 사람에게 도움 주는 그날을 기다려
남들은 몰라. 왜 그리 아끼고 또 아끼는지
남들은 몰라도 돼. 언젠가 큰 뜻의 그 날 오리!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간 걸
하지만, 아직 멀었어.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만 해.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만이 모두를 위한 일

언젠가 알거야. 누구나 알거야. 우리의 깊은 뜻
내가, 당신이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가 알거야. 누구나 알거야. 우리의 깊은 뜻
내가, 당신이 기억하고 있어요.

둘의 따뜻한 시선. 이내 꼬끼오! 소리 들리며 날이 밝았음을 알려준다.

조대감 하하... 오랜만에 부인하고 밤을 지냈군.
아내 그러게요. 손님 가시기 전에 아침상 준비해야겠어요.

그때, 최대감 나온다.

최대감 나가 시방 염치는 있는지라 아침까지 축내고 가지는 않지라잉.(생각난
 듯 다시 들어가더니 바로 나와) 아따, 시방 내가 갖고 온 종이를 두고
 갈 뻔했지 뭐당가? 이것은 나의 종이로 구멍을 메웠던 것인게, 갖고
 가불겠소.

조대감 잠깐!

최대감 (으시대며) 하하.. 그러지라? 나가 이런 것까정 떼갈줄은 몰랐지라?

조대감 아닙니다. 자신의 물건을 갖고 가는 것은 당연지사. 다만... 그 종이를
 붙이기 위해 쓴 우리집 밥풀은 떼어놓고 가셔야지요.

조대감 최대감이 들고 있던 종이조각을 박박 긁는다.

최대감 (무릎을 꿇으며) 아이고, 선생님! 시방 지가 잘못했지라. 내기는 없던
 일로 허고, 자. 이 굴비 잘 자쇼잉. 선생님의 절약정신을 본받아 시방
 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소잉.

조대감 어허.. 이거, 내기에 이긴자가 갖기로 하지 않았소?

최대감 조대감께서 이기셨소잉. 나는 시방 새발에 피요, 아니지. 발톱에 때만
 치도 못 따라갔소잉.

최대감 썩어 창피스러운 듯 사라진다. 그 뒷모습을 보고 굴비를 들고 있던 조대감 뒤
 돌자 씨익 웃으며 굴비를 흔들해보인다.

조대감 자, 오늘은 굴비 반찬이구나!

아내 어머니, 정말 굴비를 주고 간거예요?

석 어디, 어디요? 하하.. 오늘 제 생일이라 사 오신 거예요?

영 굴비를 먹을 날이 오나디, 꿈만 같아요.

조대감 음... 이런 귀한 굴비를 한꺼번에 먹어 없앨수는 없지! 석이 넌 당장

새끼줄을 좀 갖고 오너라.
 석 (어리둥절하다가 가질러 나간다)
 아내 아니, 새끼줄은 뭐에 쓰려구요?
 영 아! 생선비닐을 벗길 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석 (줄을 내밀며) 여기 갖고 왔습니다.
 조대감 (굴비를 싸 두었던 줄에 이은 후) 자, 이만하면 되겠지. 부인, 어서 아침을 먹읍시다.
 아내 저.. 그럼 굴비는 언제 구울까요?
 조대감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어서 밥을 내오시오.
 아내 네. 영아, 우린 밥을 내오자꾸나.
 영 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모여앉은 식구들

조대감 (천정에 굴비를 메달고는) 자, 이렇게 밥 한술 뜨고, 굴비를 쳐다보니 이 비릿비릿 한 맛과 고소함이 대번 느껴질게다. 다들 해 보자.
 아내 (밥 한술 뜨고는 굴비를 쳐다본다) 어머, 정말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영 (따라해보고는) 우와, 이렇게 굴비를 매일같이 먹을 수 있다니 신기한 걸요? (다시 굴비를 바라본다)
 조대감 어허, 영아. 그렇게 자꾸 보면 짜다. 물 마셔라.
 영 네!
 석 (한번 보고 한숨을 쉬더니 다시 한번 본다)
 아내 석아, 그렇게 자꾸 쳐다보면 굴비가 닳지 않겠니? 밥 한번에 딱 한번 씹만 보자꾸나.
 조대감 어허, 두시오. 오늘 석이 생일이잖소. 오늘은 맘껏 즐기게 둥시다.
 아내 당신은 어쩜 그리 너그러워요?
 영 부럽다. 아버지, 나도 다음 생일엔 맘껏 보게 해주세요.
 조대감 그래, 그래. 하하하... 석아, 어제의 고깃국을 데운것과 오늘의 굴비덕에 너의 생일상이 아주 푸짐해 졌구나. 맛나지? 하하하...
 석 (멋쩍은 표정으로) 네...아주...맛납니다. 하하..하하하하...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에 암전.

(3장)

누군가 급히 뛰어가는 소리에 무대 밝아지면, 한 사내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에 다가오는 아내.

말년 근데 말여. 영이 넌 아버지처럼 아끼는게 힘들지 않아? 더구나 없는 살림이면 몰려두 너넨 돈도 많으니.

영 힘들긴 뭐가 힘들어? 다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시니까 함께 아끼는 거지. 아버지 혼자 아끼신다면 그게 더 힘든 일이야.

끝순 맞아. 식구들은 다 돕고 사는거여.

말년 쳇, 그래도 난 그렇게는 못 살거 같어.

끝순 너도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면 더 했을지도 몰러.

말년 끝순이 넌 어째 영이 편만 드는거 같다?

끝순 아니..뭐... 영이가 다 옳은 소릴 허니께.

영 (끝순일 이리저리 살펴보며) 실은 나 끝순이랑 할 말이 있어 나왔어.

말년 것봐. 영이 니가 일이 있지 않고서 왜 나왔겠어? 뭔디? 나는 알면 안 되는겨?

영 아니. 말년이 너도 같이 도와줘야 해.

일동 뭔데?

영 끝순아, 너 우리 오라비 좋아하는거 맞지?

말년 (놀라며) 뭐여? 그 짠돌네를... (입을 틀어막으며) 아니, 그 조대감댁 자제분.. 아니,아니. 영이 오라버니?

영 말년이 넌 제일 친한 친구면서 그것도 눈치 못챘던거야?

끝순 아이 참...

말년 (팔짱을 끼고는) 어쩐지... 내가 삭 니덜 집 욕하면 유난히 끝순이가 막 뭐라하는 것이... (입을 또 틀어막고는) 아니.. 난 그냥.. 아, 알잖아. 너도. 동네사람들이 너네집 돈도 많은면서 콩콩 싸매고 짠돌이짓은 다 한다고 뭐라하는거.. 뭐, 나도 그 정도로만.. 아... 내가 뭐라하는거여..

영 괜찮아. 알지 내가 왜 몰라? 하지만, 나나 우리집 식구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던 신경 안써. 아버지께선 이렇게 근검절약하며 살다보면 반드시 큰 일을 할 날이 올거라고 하셨거든. 난 그럴거라 믿어.

말년 (말을 돌리려는 듯) 그러. 그건 알았고. 내가 뭘 도우면 되는겨?

영 실은 아버지께서 오라비의 적당한 혼처를 찾고계셔.

끝순 (화들짝) 뭐여?

영 것봐. 너도 걱정이지? 오라비는 너 아니면 안된다는데, 알다시피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는 오라비잖어.

끝순 응. 오라버닌 효심이 지극하니까. 아... 어쩜 그리 못하는 것없이 바른지 몰라. 나는 또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저번엔 꽃을 한아름 꺾어와서...

끝순 (결심한 듯) 응. 그래. 생각해보니 고기같은게 뭣이 중하다?
 모름지기 알뜰살뜰 아옹다옹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게
 중한거 아니겠어?
 말년 (고개를 저으며) 끝순아, 나중에 왜 안말렸냐고 날 원망하지
 말어라.
 끝순 준비됐어. 간장종지는 뭘데?
 영 좋아. 우리집은 많은 찬대신 간장을 찍어먹기 일쑤야. 그런
 데, 간장 종지에는 간장을 얼만큼 부어 두고 한 끼를 먹는게
 좋을까?
 끝순 (세상 심각하게) 음... 아껴야 해.. 음... 아끼려면... 아!
 일동 (끝순을 쳐다본다)
 끝순 종지의 반은 채워야 한다!
 말년 에이~ 그건 내가 생각해도 틀린 답이구먼.
 영 (실망하며) 그러게. 우리집은 간장종지에 간장이 간신히 다음
 정도로 아주 적게 담아. 그래야 조금씩 찍어 먹으니까.
 끝순 아니! 그렇게 먹게되면 아쉬우니까 자주 찍어 먹게 될거고,
 그러면 그럴때마다 간장을 자주 부어 먹게 되니까 얼만큼을
 먹는지 되려 알수가 없어. 무엇보다 그렇게 바닥에 닿을 정도
 로 먹으면 쇠수저가 닿아서 수저도 닳을 것이고, 종지까지 닳
 아버릴지도 몰라. 그러니 종지에 반 정도는 부어야 여러모로
 더 아낄 수 있는거지!
 일동 (놀라 말이없다)
 끝순 ?
 일동 (박수를 친다)
 영 (끝순의 손을 잡으며) 할 수 있겠어. 짠순이가 될 재능 충분
 해. 너, 정말 우리 집으로 시집오고 싶구나?
 말년 끝순아, 다시 봤어. 너 정말 대단혀.
 끝순 아, 나 왜이리 설레지? 갑자기 뭐든 다 아낄 수 있을 것 같
 아. 아니, 아껴야 해. 오라버니가 언젠가 그랬거든. 아끼는건
 습관이라고. 나도 오라버니에게 어울리는 아내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력할테야. (영에게) 영아, 나 많이 가르쳐줘.
 말년아, 혹시 너와 있을 때 내가 아끼지 않으려들면 호되게
 혼내 줘야해!
 말년 아... 그런... 거였구나. 내가 도울일이.. 감시.. 뭐 그런거?
 영 (고개를 끄덕이며) 응. 말년이 니 도움이 가장 필요해. 아낄
 수 있다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알면 좋겠지만.. 끝순일
 위해 먼저 잘 보살펴주었으면 해.
 말년 으...으응.

끝순 (자신의 신발을 보더니) 어머니, 이렇게 오래 신고 있으면 닳고 말텐데... 안되겠다. 오늘은 그만 가봐야겠어. 그럼, 먼저 갈게.

말년 어.. 그...그럼 나도... 끝순아, 같이가. 아, 신은 신고가도 되잖여!

사라지는 돌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영 그래. 끝순아, 너가 짠순이만 된다면 금방 동네에 소문이 나겠지? 그럼, 아버지 당장 널 찾으러 갈테고... 오라비도 참 행복해할거야. 그러니까 아끼는 방법을 꼭 터득해야 해!

아낄수만 있다면! (영의 노래)

아낄수만 있다면 그 아낄 수 있는 것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인가!
아끼고 아끼다보면 반드시 큰 일을 하는 날이 오리라.
아버지의 말씀.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한 마디.
어린 나에겐 아껴야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난 보았네. 아버지의 뜻을.
하지만, 난 보았네. 아껴야만 하는 이유를.
“그 언젠가 잘 곳 하나 없던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잘 곳을 마련해주셨어”
남들이 뭐라하던 지금의 나처럼 아끼고 아껴 살아가리.

아낄수만 있다면 그 아낄 수 있는 것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인가!
아끼고 아끼다보면 반드시 큰 일을 하는 날이 오리라.
아버지의 말씀.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한 마디.
가끔 나에겐 아껴야만 한다는 것이 쇠사슬처럼 묶인 듯
하지만, 난 보았네. 아버지의 뜻을.
하지만, 난 보았네. 아껴야만 하는 이유를.
“그때, 이렇게 아끼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 없었을거야”
남들이 뭐라하던 지금의 나처럼 아끼고 아껴 살아가리.

영 (미소를 지으며) 남들이 손가락질 하면 어때? 우린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뜻대로...!

- 2막 -

(1장)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는 듯 한 음악. 빗소리가 한창 이어지고 나면 무대 밝아지고, 이내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조대감의 집 앞이다. “생선사려~ 생선사려~” 하며 지나고 있는 생선장수.

끝순이 (버선발로 나와) 저기, 생선 좀 봐도 될까요?
생선장수 아이고 그럼유. 함 보시겠수? (생선을 펼친다)
끝순이 아이고, 생선이 참 많네요.
생선장수 많쥬. 실컷 보구 좋은 놈으로 고르슈. 거, 소금도 적당히 쳐서 아주 맛난다오.
끝순이 (이 생선, 저 생선 조물락 거리며) 이것도 괜찮은거 같고... 저것도 괜찮은거 같고..
생선장수 거... 생선 물르니까 너무 쪼물락대지는 마시고...
끝순이 저...
생선장수 (반갑게) 그래, 뭘로 하시겠수?
끝순이 아무래도 아버님께 혼날 거 같아요. 다음에 오시면 그때 꼭 살게요.
생선장수 (생선을 덮으며) 아, 안 살거면서 뭘그렇게 뒤적거렸대? 에이, 하두 비가 안그쳐 얼른 팔고 접으려다 재수없게 걸렸구먼. 에이! 튀!

생선장수 머리에 재빨리 퇴장한다. 그때, 등장하는 조대감아내.

끝순이 (자랑스레) 어머니, 이따 저녁엔 생선국을 먹을 수 있겠어요. 일단 제 손을 장독에 충분히 행구고 올게요.
아내 아이고, 이제 정말 이 집 식구가 다 되었구나. 아이고, 두고두고 먹게 우물에 씻으면 좋으련만, 비가 이리 그칠 생각을 안 하니 원...
조대감 아침 준비 다 됐느냐?
끝순이 네. 아버님!(상을 들고 들어가려 한다)
영 (상을 뺏어들며) 제가 할게요.
아내 (자리에 앉으며) 호호... 며늘애기가 들어오고는 집이 한층 더 밝아졌지 뭐예요?
조대감 암! 살림을 부인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소. 허허허..
아내 맞습니다. 우리 석이가 보는 눈이 있어요. 호호호..
끝순 어머니는 차암...
석 (괜시리 쑥스러워) 음! 아버님, 드시지요.
조대감 마누라 칭찬에 왜 그리 인색한고? 허허허.. 자, 먹자.

식구들 모두 간장종지 하나에 밥을 뜬다.

조대감 역시, 며늘애기 말처럼 하니, 훨씬 더 절약이 되는 것 같구나.

영 맞아요. 역시 새언니가 최고죠?

일동 하하하...호호호...

그때, 멀리 뛰어오며 부르는 사내의 음성.

사내(E) 헉헉... 대감님, 대감님!

석 아침 일찍부터 누구일까요?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조대감 그러거라.

석이 나와서 비가 계속 쏟아지는지 손으로 비를 피해본다.

석 아이고, 이리 거센 비바람에 어인 일이십니까?

돌쇠 큰일.. 큰일입니다. (두리번 거리더니) 역시 여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까유.

석 진정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좀 하시지요.

돌쇠 조대감님께 긴급하게 상의 좀 드릴까 허는디...

그때, 조대감과 식구들 다가온다.

조대감 무슨일인데 그러나?

돌쇠 (무릎을 꿇고는) 아이고, 대감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조대감 ?

돌쇠 홍수도 이런 홍수는 처음입니다. 다행히 대감댁은 높은 언덕에 있어
비를 피할 수 있나 봅니다. 지금 마을은 물이 들이닥치고 아주 난리
예유. 모두 이곳으로 피해 목숨이라도 부지하게 해주세유.

조대감 어허! 그런일이...!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온다 했더니.. 내 진작에 살펴
봤어야 했거늘... 어서, 어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안내하게. 아범
아 넌 사람들이 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거라.

아내 이런... 얼마나 추위에 떨고 있을까? 예미와 영이는 아궁이에 불을 더
떼우고, 뜨끈히 먹을 수 있는 국이라도 먼저 끓여 보거라.

조대감 이럴수록 배가 든든해야하니, 밥도 잔뜩 해놓고!

식구들 분주한 사이. 끝순이 의아하다.

끝순 (영을 슬쩍 붙들고는) 괜찮으신거지?

영 응. 아버지의 철칙이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풀어야 하는 것이 재산이라 했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언제나 아껴오신거지. 긴 말 할 시간 없어. 얼른 준비하자.

끝순 아버님의 큰 뜻... 바로 이런거였구나?

영(E) 여기, 물부터 얼른!

끝순 네! 가요!

더욱 거세지는 빗소리와 겹쳐지며 경쾌한 음악소리에 식구들 손님들 맞이할 준비로 바쁜 모습에 암전.

(2장)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무대 다시 밝아지면 조대감 TOP.

조대감 어허 것참... 자꾸 고맙다고하다니..? 그저 난 그 동안 나 혼자 잘 살려고 찐돌이 노릇을 한 것이 아니었다오. 내가 아끼고 아낌으로써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평생을 근검절약하여 재산을 모은 것이니 정말 어려울 때 적게나마 내 재산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굶주리고 있는 내 이웃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농지 또한 무상으로 제공할 터이니 사는데 지장 없을 거요. 또한, 이번과 같은 홍수로 피해를 또 입을 수 없으니, 석공을 불러 앞 냇가에 다리를 놓고 독을 쌓도록 하겠소이다.

일동(E)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돌쇠와 말년 함께 등장한다.

말년 아이고, 난 조대감께서 그저 찐돌이인줄로만 알았지 그리 배포가 크신 줄은 꿈에도 몰랐구먼.

돌쇠 그려. 모든 재산을 내어주신 우리 조대감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모두 열심히 근검절약해야 되는겨. 아, 베풀기 위한 근검절약이야 뭔들 못 하겠어?

말년 에이, 그간 절약하는거 계속 실패해왔다고 허지 않았어유?

돌쇠 췌! 지금부터 한단 말여. 지금부터!

말년 그나저나 조대감의 선행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담서유?

돌쇠 암! 알고보니, 우리 마을 사람들 뿐 아니라 다른 마을에까지 정곡식을 다 풀어 나눠줬다는 겨. 그러니, 임금께서 이 소식을 듣고 정3품의 벼슬을 내리셨다.

말년 아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먼. 그야말로 이런 선행을 베풀어 우
 릴 모두 새롭게 살게 해주셨으니 어르신이야말로 인자한 어버이시구
 먼.
 돌쇠 그러.그거 좋구먼. 이제 조대감은 짚돌이가 아니여. 인자한 어버이라
 는 뜻의 자인고비구먼!
 말년 자인고비? 아! 자린고비!

경쾌한 전주소리에 모두 나와 군무.

자인고비 (합창)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
 아무리 재물 많다해도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루아침에 알거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지지

재물을 탐내다간 없어지고 없어져서 사라지지
 아무리 재물 많다해도 뜻깊게 쓰지 못한다면
 하루아침 알거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지지

아무리 가진 것 없다해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언젠든 큰 재물 얻을 수 있어.
 그 재물 바로 근검절약 선행, 선행.
 그 재물 바로 베풀고 베푸는 선행, 선행.
 자린고비, 자린고비, 자린고비.
 인색한 자린고비 아니, 아니, 아니야.
 자인고비, 자인고비, 자인고비.
 인자한 자인고비 그래, 그래, 그거야.
 자인고비, 자인고비!